

## 모두가 주인된 마음으로

류철희 | 前 충청남도부지사



올림픽 선수단이 개선하던 8월 25일 밤, 서울광장에 모인 관중은 물론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모든 국민은 기쁨과 벅찬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지 목청이 터져라 환성을 올리고 손바닥이 부르틀 정도로 박수를 쳤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됨’ 만이 있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늙은이와 젊은이, 배운이와 못 배운이, 잘사는 사람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야말로 신명나는 잔치판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뿌듯하게 한 것은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만 환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투혼을 불태우며 잘 싸운 선수들에게도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편 가르기와 패거리 싸움이 그칠 날 없고 오직 이긴 자에게만 박수를 보내 진 사람은 설 자리를 잃게 하는 일이 수없이 벌어지던 현실을 보아왔던 우리들에게 이날의 ‘베이징 올림픽 선수단 개선 국민대축제’는 가슴 벅찬 한 편의 드라마요, ‘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같은 서울 광장에 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찌면 분위기와 열기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자 지난 날 석 달 가까이 끌어온 촛불집회 광경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사회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고 나라의 번영을 바라는 뜻이야 두 집회 참석자들의 가슴에 똑같이 흐를텐데 현장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떨어져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면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너그러움, 상대가 서로 다름을 받아들

이고 공동선을 찾으려는 지혜로움이 부족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은 뒷전으로 하고 남의 떡이 크게만 보일 때 불평과 불만은 쌓이게 마련입니다. 국가정책이나 사회제도만을 탓하기보다 자신이 기본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평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평하고 판단하는 일' 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 이라고 어떤 현인이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무지개원리"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가톨릭 신부가 쓴 책인데 대형서점 경제코너에 진열 된 것이 새롭다고 느껴져 한권을 샀습니다. 신부가 쓴 책이니까 종교적인 냄새도 다소 풍기고 성경말씀도 많이 인용했지만 전체에 흐르는 맥락은 일반인, 특히 경영자나 지도층 인사들이 귀담아 들을 내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책 내용을 제한된 지면에 다 옮길 수는 없고 중요한 원리 7가지를 소개하면

- (1)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 (2) 지혜의 씨앗을 뿌려라.
- (3) 꿈을 품어라.
- (4) 성취를 믿어라.
- (5) 말을 다스려라.
- (6) 습관을 길들여라.
- (7) 절대로 포기하지마라.

각 항목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 그 내용에 맞는 성경 말씀이 쉽고 재미있게 쓰여 있어서 종교인은 물론, 경영자, 직장인, 학생, 주부들에게까지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일을 하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추진하고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 그분의 방식을 본받으려 노력하며 꿈을 갖되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내용입니다.

또 실패를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며 초등학교 때 두 번 낙제하고 성적이 달려 일반대학을 포기하고 사관학교를 지원했으나 두 번 떨어진 끝에 합격했고 정계에 진출해서도 낙선의 쓴잔을 거꾸 마신 끝에 당선한 영국총리 처칠경의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침울한 영국민들의 가슴에 "나는 피와 땀과 눈물을 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해 마침내 영국을 승전국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려고 단상에 오르자 많은 사람이 명연설을 듣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을 때 그는 관중을 천천히 돌아보며 천천히 한 말은 아주 짝막한 일곱 마디였습니다.

-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 Never-Never-Never-Never-Never-Never give up

올림픽 개신 축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과 촛불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정신이 함께 흐를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꿈일까요?

새해 들어 친지들에게 나누어준 덕담이 생각납니다. 책을 읽다가 하도 좋아서 베껴온 내용은 "隨處作主, 入處皆眞" 여덟 글자입니다.

- 언제 어디서든 주인이 되라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이 모두이고 전부다.